제 11 호

북토크 톡!톡!톡!

발행일 : 2014.09.15

발행인 : 북토크톡

11호는 1,2학년 통합교과 우리나라, 겨울 관련 도서와 두 명의 그림책 작가 서평, 고전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번호를 끝으로 통합교과관련 목록이 종료되고 다음호부터는 3,4학년 사회교과 관련목록을 실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평도 그림책에 국한하지 않고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 한 권씩 서평을 실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질 높은 내용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토크 톡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주세요.(mary76@daum.net)>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1,2학년군 통합교과 우리나라, 겨울 관련도서-

책정보 (전집)				관련 단원 (학년-학기-단원명 순)
	아람 꼬마 다글리 (아람/2014)	1. 타이완: 이령의 태풍 휴가 2. 일본: 우리아빠가 좋아하는 화과자 3. 베트남: 메콩강의 노래 10. 중국: 리앙의 보물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첫 지식 그림책 콩알 (웅진다책/[출판년도 불명])	16. 눈 내린 겨울 공원 17. 어여차 김장 담그는 날 19. 새해 새 하루 설날		통합교과 겨울 2-2 1. 겨울이 왔어요
	오천년 생활사박물관 (편집부/한국 삐아제/2010)	1,2 우리 집 3,4 우리 땅 5,6 우리 옷 7,8 우리 음식	9,10 우리 민속 11,12 우리 돈 13,14 우리 과학 15,16 우리 예술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2. 우리의 전통문화
	교과서 으뜸 사회 탐구 (한국헤르만 헤세/2014)	15. 북한에서 온 내짝꿍 순아 63. 갈라진 나라 79. 가깝고도 먼 나라들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지구별 문화 여행 (한국삐아제/2011)	57.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58.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한솔테마세계문화 (한솔교육/2009)	3. 중국 4. 일본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북토크 톡!톡!톡!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1,2학년군 통합교과 겨울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추워도 괜찮아! : 동물의 겨울나기 (모니카 랑에 글/슈테펜 발렌토비츠 그림 /시공주니어/2004)	통합교과 겨울 1-2 1. 겨울이 왔어요
	열 마리 개구리의 겨울잠 (마도코로 히사코 글/나카가와 미치코 그림 /꿈소담이/2011)	통합교과 겨울 1-2 1. 겨울이 왔어요
	곰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 (캐롤린 프랭클린 글,그림/파랑새/2014)	통합교과 겨울 1-2 1. 겨울이 왔어요
	친구에게 주는 선물:겨울을 준비하는 가게 (후쿠자와 유미코 글, 그림 /한림출판사/2007)	통합교과 겨울 1-2 1. 겨울이 왔어요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원저/제인 레이 글,그림 /마루벌/2008)	통합교과 겨울 1-2 2. 따뜻한 겨울
	착한 편지 고마워 (고데마리 루이 글/다카스 가즈미 그림 /김보경 역/개암나무/2013)	통합교과 겨울 1-2 3. 한 해를 보내며
	놀자, 노세! 전통놀이 이야기 (호원희 글/민은정 그림/토토북/2012)	통합교과 겨울 2-2 1. 겨울풍경
	안녕 겨울아 (어린이 통합교과 연구회 글/이지연 그림 /상상의 집/2013)	통합교과 겨울 2-2 1. 겨울풍경
	야 ! 방학이다 (백은영 글/김화미 그림/대교출판/2011)	통합교과 겨울 2-2 1. 겨울풍경
	할머니 편지 왔어요 (조 외슬랑 글/클레르 프라네크 그림 /정미애 역/교학사/2007)	통합교과 겨울 2-2 2.잘 가! 2학년아
	새 학년엔 멋있어 질거야 (베시 더피 글/자넷 윌슨 그림/ 햇살과나무꾼 역/크레용하우스/2014)	통합교과 겨울 2-2 2.잘 가! 2학년아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1,2학년군 통합교과 우리나라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그림옷을 입은 집 (조은수 글/유문조 그림/사계절/2002)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1. 우리나라의 상징
	아름다운 우리 옷 :우리나라 바로 알기 시리즈 (김미혜 지음/꿈꾸는달팽이/2013)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2. 우리의 전통문화
	마루랑 온돌이랑 신기한 한옥이야기 :옛물건으로 만나는 우리문화 시리즈 (햇살과나무꾼 지음/해와나무/2007)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2. 우리의 전통문화
	하늘 높이 태극기 (어린이통합교과연구회 지음 /상상의 집/2013)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1. 우리나라의 상징
	빛나는 유네스코 우리유산 시리즈1-15 (김미혜 외 지음/웅진주니어/2009~)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2. 우리의 전통문화
	새싹 인물전시리즈 (비룡소 편집부 지음/비룡소/2012)	통합교과 우리나라 1-2 1. 우리나라의 상징
	호기심 도서관 시리즈 5, 35 (비룡소 편집부/비룡소/2009)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고뭉치 북한박사 (장소하늘소/웅진주니어/2001)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사계절/2010)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 문화재 (우리누리/주니어중앙/2011)	통합교과 우리나라 2-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 통일, 북한 관련도서는 2학년이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아 많이 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북로크 흑!흑!흑!

통합교과서 수록도서

-겨울, 우리나라 통합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수록 도서-

※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는 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함.

주제	학년	단원	교과서 수록 도서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
우리나라	1	1. 우리나라의 상징	안녕 태극기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여행/유호선/아이즐북스 태극기가 하늘높이/정대련/아이코리아 나라꽃 무궁화를 찾아서/김속분/가문비어린이 울어버린 애국가/이규희/밝은 미래
		2.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 한옥	우리 한옥에 숨은 과학/서지원/미래아이 Why 의식주와 풍속/우덕환/예림당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한옥/정민지/주니어 RHK
	2	1.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내가 먼저 내민 손 내미는 열린 세계	우리도 평양 가자/북한어린이문화연구회/예림당 북한 아이들의 비밀일기/이은서/국민출판 개구리네 한솥밥/백석/보림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북한편/이은서/국민출판 친구 없이는 못살아/이재복/산하 김첨지의 메주콩/이재복/산하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이재복/산하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이재복/산하 어린이 북한 바로 알기/도희운/청송 국기 따라 세계 여행/와라베 기미카/베틀북 나는 통일이 좋아요/정혁/대교 참 좋다 통일세상/임수경/황소걸음 두근두근 세계여행/베아트리스 베이용/베틀북
겨울	1	1. 따뜻한 겨울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1학년 1반 나눔 봉사단/이승희/주니어김영사 거상 김만덕/민병덕/살림어린이 할아버지 손은 약손/한수연/하늘을 나는 교실 어린이를 위한 나눔/양태석/위즈덤하우스 유일한에게 배우는 나눔/양태석/위즈덤하우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자워봉사/김하늘/토토북 나누면 커지는 마음 배려/서지원/좋은책어린이 나누면 행복해요/엘렌 사빈/문학동네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사람 이태석/정희재/주니어중앙 나눔/프란쇼/애플비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곽영미/북오션 나는 평화를 꿈꿔요/유니세프/비룡소 내 친구 폴리 신부님/이태석/생활성서사 너 때문에 행복해/노지영/소담주니어
		2. 숲 속의 겨울	아기 너구니의 봄맞이	겨울의 잠꾸러기 곰/김수경/기탄 겨울이 오면 동물 친구들은 무얼할까/조제트 공티에/삐아제 어린이 겨울잠이 싫어요/핸리 반 달레 동물들의 겨울나기/카트린 드 세리네/비룡소 오들오들 겨울나라 동물 친구들/잭 티클/홍진 P&M 쿨쿨 겨울잠을 자요/이상배/계림북스
		3. 한 해를 보내며		다짐 대장/서지원/좋은책어린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김영진/스콜라 시크릿 실천법/신경애/길벗스쿨 어린이를 위한 실천/한창욱/위즈덤하우스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존 고다드/글당
	2	1.겨울풍경	겨울이 왔어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이원수/웅진 추워도 괜찮아/모니카 랑에/시공주니어 천수만에 겨울 철새 보러 가요/이성실/아이세움 영산강 아이들 겨울이야기/오영해/거북이북스 얼음거인/에르빈/온누리 겨울이 여름보다 좋은 59가지 이유/윤희정/대교 겨울아이/다치하라 에리카/달리
		2. 한 해를 보내며	친구야 잘가	새 학년엔 멋있어질거야/베시 더피/크레용하우스 틀려도 괜찮아/마키타 신지/토토북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다니엘 포세트/비룡소 고맙습니다. 선생님/패트리샤 폴라코/아이세움 은서야 겁내지마/황선미/시공주니어

박보미

서정적인 그림책 "첫 눈"의 작가 박보미의 관련된 정보는 아직 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이의 글에 그림을 그린 "털실 한 뭉치"와, 자신의 첫 그림책 "첫 눈"에서 아주 서정적인 그림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책 "울트라 비밀 권법"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반전의 그림을 보여 준다. 그런 그녀의 변화무쌍함이 다음 작품을 기다리게 한다.

내가 슈퍼 히어로라면....

(울트라 비밀 권법 / 박보미 글, 그림/ 한솔수북/ 2013)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은하

어렸을 때 TV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최고의 슈퍼 히어로는 "원더우먼"이었다. 빙글빙글 돌면서 히어로의 복장으로 바뀌는 그녀의 힘이 부러웠다. 그래서 원더우먼의 왕관, 팔찌, 망토 등을 흉내 내면서 놀았었다. 왕관과 팔찌를 차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의를 구현하던(?) 추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박보미의 **울트라 비밀 권법**은 그런 추억을 불러다 주었다.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 엄마, 그런 엄마를 인류의 적으로 상아 정의를 구현하려는 주인공은 울트라 캡슐이 되어 본다. 그러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전에 권법 연습에 변신도구 만들기 등 은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드디어 결전의 날! 완벽하게 변신한 주인공은 엄마에게 자기 싫어, 공부 싫어, TV 보고 싶어 등으로 선공에 나서지만 엄마는 만만히 볼 수 없는 요술공주 핑키 퐁! 비밀 무기를 다 써서 싸워 보지만 둘 다 막상막하!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히어로는 평화협정을 맺는다.

집집이 있을만한 부모와 자녀간의 싸움과 협정을 이렇게 유치하지만 재미있게 그렸다. 아이들과 부모 모두 이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일 거 같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평화적인 협정을 하면 어떨까?!!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엄마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가정교육으로 이어지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가정교육의 부재로 혼란스러워진 사회를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읽게 포인트

1. 슈퍼 히어로 알아보기
2. 내가 되고 싶은 슈퍼 히어로 나누기
3. 엄마와 협정할 사항 나누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엄마 아빠를 바꿔 주는 가게 / 프란체스카사이먼 / 예림엠엔비(예림당) / 2011
엄마를 팝니다 / 카레산토스 / 베틀북(주) / 2011
엄마가 화났다 / 최숙희 / 책읽는곰 / 2011

미야니시 타츠야

일본의 그림책 작가인 미야니시 타츠야는 작가 스스로 한국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한 "개구리의 낮잠"으로 한국 어린이들에게 처음 인사를 했다. 그의 책을 한 두 권쯤 읽다 보면 특유의 그림으로 한 눈에 그의 작품을 알아 볼 수 있다. 유쾌하고 유머가 가득했다가도 살짝 눈물짓게도 하는 특별한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 미야니시 타츠야의 대표작으로는 '고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비롯해 '진짜 형을', '우와! 신기한 사탕이다' 등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 녀석 맛있겠다/미야니시 타츠야 글,그림/백승인 옮김/달리/2004)
영훈초등학교 사서교사 이순주

요즘처럼 아빠 육아에 관심이 많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서점가만 보더라도 "00아빠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독서, 아빠 육아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달라진다."등등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어 있는 걸 보면 아빠 육아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엄마와의 정적인 놀이는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 반해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접촉이 많은 과격한 놀이는 아이의 두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사회성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부성애 아닌 부성애에 관한 그림책 "고 녀석 맛있겠다" 역시 아빠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폭군 도마뱀이라고 불리우는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르스는 어느 날 홀로 남겨진 작은 알에서 깨어난 초식공룡 안킬로사우르스 아기를 만나게 된다. 몹시 배가 고팠던 티라노사우르스는 작은 안킬로사우르스를 보고 "고 녀석 맛있겠다." 라고 하며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마치 각인효과처럼 안킬로사우루스 아기는 티라노사우르스를 "아빠~" 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 이유인즉슨 '맛있겠다'라는 이름을 불러주었고, '맛있겠다'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티라노사우스르가 '아빠'라는 나름의 이유였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긴 하지만 그럴듯했다. 이 세상에 혼자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주고 나의 정체성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후 키란타이사우르스에게 잡아먹힐뻔한 안킬로사우르스를 구해 주며, 아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티라노사우르스만의 여러 비법을 전수해 주던 아빠는 무협소설의 사부처럼 "이제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며 안킬로사우르스를 떠나보내려고 한다. 아빠와의 달리기에서 이기면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약속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눈물을 보며 마지막 장면에서 살짝 찡한 마음이 들었다. 아기를 넓디넓은 광야에 혼자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같은 안킬로사우르스 무리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 녀석 맛있겠다"의 인기에 힘입어 같은 시리즈가 너무 많이 기획,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비슷비슷한 주제와 전개패턴으로 살짝 지루한 감이 보여 아쉽기는 하지만 "고 녀석 맛있겠다"의 작품주제와 이야기 전개방식은 아이들을 사로잡을 만하다.

읽게 포인트

1.미야니시 타츠야의 다른 그림책도 함께 살펴 보고 작가의 그림 특징을 찾아보기
2.아기 안킬로사우르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할까?
또는 같은 안킬로사우르스 무리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이야기 나누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신시아 라일런트 / 보물창고 / 2004
고 녀석 맛나겠다(2011) 개봉 / 후지모리 마사야 감독
여우가 오리를 낳았어요 / 순칭펑 / 예림당 / 2003

한국고전 – 전우치전

이 이야기는 문헌설화와 소설로 정착되었는데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두 계열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전우치전』 계열이다.** 이 계열은 전우치의 일대기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서사구조나 삽화 등이 『홍길동전』과 유사하다. 활동 공간도 조선에서 해외로 확대되며, 중국 황제와 전우치의 대결이 비중 있게 다뤄져 전우치가 연나라 왕이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두 번째는 『전운치전』 계열이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름과 도술을 부린다는 사실, 임금을 속이고 황금대들보를 가져가는 것이 『전우치전』과 공통점이다. 그러나 '일대기 구조'가 아닌 삽화를 나열하면서 엮어나가는 '병렬적 삽화편집구조'로 이루어졌고, 홍길동전의 영향과 모방에서 벗어나 나름의 독자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전우치전』 계열인 나손본이 비교적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전운치전』 계열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름이 '전우치'이고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전운치전』 계열의 이야기임에도 『전우치전』이라고 표기한 것을 전례로 하여 현대 활자본도 『전우치전』으로 사용하면서 두 계열의 이야기가 모두 『전우치전』으로 표기되고 있다.

작가 미상	전우치전은 조선 15세기 말 16세기 중반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개 조선 중기 이후 17세기 초반 사이에 창작되었다고 전해진다. 홍길동전과 같이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드러나 작가가 허균이라는 설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 전우치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입맛과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 (창비 작품해설 참조)
전우치전 줄거리	전우치라는 처사가 자신의 도술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애환을 해결해주는 판타지 사회비판적 고전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듯 전우치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황금 대들보를 팔아 쌀과 씨앗을 나눠주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등의 활약을 펼친다. 자신보다 더 도술이 높은 화담선생을 따라 입산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출판사별 책의 특징

	창비 김남일 글	전운치전 계열로 신문관본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여우로부터 비기를 얻는 도술 습득 과정과 탄생 일화는 필사본을 참고하였다.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고 소리 내어 읽는 재미가 있으며 내용에 어울리는 신비하면서 판화느낌의 삽화가 돋보인다. 부록에 작품해설이 있지만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조금 더 쉽게 작품해설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니어 김영사 고영 글	전운치전 계열의 이야기로 전우치의 도술 행적에 중점을 두었다. 경판 37장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우에게서 구슬을 얻는 장면이 서두부에서 생략되었으며, 전개부에서는 "동네 부인과 사통하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백발노인의 아들을 구해준 부분"이 생략되었다. 또한 결말부에서는 모친의 삼년상과 구미호를 죽이는 장면이 없이 서화담을 따라 입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김영사의 전우치전 이야기는 대체로 원래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책의 말미에 해설을 넣어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이 큰 장점이다. 다만 어린이를 위하여 이야기를 너무 쉽게 풀어 쓰다 보니 고전의 글맛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황제펭귄 송언 글	저학년 아동들이 쉽게 고전을 접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도술사건들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쉽게 엮은 그림동화. 문체도 이야기 하듯이 ~했지, ~했단다 식으로 엮어져 있어서 옛이야기 듣듯이 쉽게 재미있게 고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삽입되어 있는 삽화 역시 이야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 구성미와 세련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림카디널 김원석 지음	전운치전 계열의 책으로 원전에 비교적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초등학생이 읽기에 삽화가 없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고전책에 대부분 수록된 작품해설이 없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려워 아쉽다.
	웅진다책 정해왕 글	전운치전 계열의 책으로 원전을 많이 생략하고 재미 위주로 편집한 경향이 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작품해설이 일목요연하다는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해설뿐만 아니라 전우치, 강림도령, 구미호 등 등장인물에 대한 일목요연한 해설이 돋보인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전집이다. (전집명 : 푸른담쟁이 우리문학 세계문학)

고전에 대한 의견은 순전히 우리 모임의 의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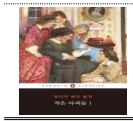
외국고전 – 작은 아씨들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가정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작은 아씨들>은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적인 소설로, 네 자매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아버지의 참전으로 인한 부재 속에서 마치가의 네 자매들은 여러 고난을 이겨내며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배려, 봉사, 사랑, 이해, 가족애 등에 대해 깨닫게 된다. 소설 속 가장 발랄하게 묘사된 <조>는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귀공자이며 부자인 <로리>와의 우정은 많은 소녀들에게 설렘을 주기도 했다.

작은 아씨들은 발간되자마자 초판이 완전 매진되었으며, 그 후로 네 자매의 사랑 이야기와 결혼 생활을 다룬 속편이 7권 더 발표되었으며, 1886년에 마지막 편인 <조의 아들들>이 출간되었다.

루이자 메이 올콧 (1832~1888)	루이자 메이 올컷은 1832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교육자였던 아버지인 아모스 브론스 올컷의 영향을 받아 여러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며, 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가로써의 문학적인 바탕을 쌓을 수 있었다. 집안이 가난해지자 가정 교사등의 생활을 하다가 출판사로부터 소녀들을 위한 소설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은 아씨들」을 출판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패미니스트였던 올콧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작은 아씨들 줄거리	미국을 배경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일어나는 마치 家의 네 자매의 삶과 사랑, 성장을 이야기한 책이다. 아름답고 차분하면서도 허영기 있는 맏딸 메그, 활달한 작가 지망생 둘째 조, 여리고 착한 셋째 베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철없는 욕심쟁이 넷째 에이미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어머니의 가정교육과 아버지의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씩씩하고 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해간다. 이웃집 로리와의 따뜻한 우정과 로렌스 할아버지 등 이웃들 간에 오고가는 잔잔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작품 곳곳에서 펼쳐진다.

출판사별 책의 특징

	시공주니어 공경희 옮김	이 책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원작 전체를 실어 1994년 출간된 퍼핀 클래식판을 꼼꼼히 번역하여 원작의 감동을 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작가와 작가의 성장과정, <작은아씨들>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뒷이야기가 책의 서두에 사진과 함께 자세히 실려 있어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데 깊은 즐거움과 따뜻함을 더해 준다.
	인디고 김양미 옮김	인디고 출판사의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의 한 권이다. 128mmx188mm의 콤팩트한 판형으로 손이 가게 만든다. 시리즈를 도서관 서가에 꽂아 놓으니 모두들 예쁘다고 한마디씩 한다. 그림도 한 장 한 장이 한 폭의 그림 같아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 충분하다. 작은 사이즈지만 이야기를 전혀 줄이지 않고 거의 원문을 다 실은 듯하다. 글씨가 좀 작은 것이 아쉬우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충분하다.
	대교 이승수 옮김	원작에 비해 축약된 부분이 있으나 아이들이 읽기 쉽게 번역되어 있다. 2~3페이지 마다 있는 컬러 삽화는 여자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한다. 부록에 있는 작가와 작품 소개는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명작 따라 세상보기는 책에 나온 내용을 더욱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특색 있다.
	예림당 이규희 옮김	원전에 비해 내용이 많이 축약되기는 했지만 내용을 많이 훼손하지는 않았다. 논술세계명작이라는 시리즈명답게 앞부분에 "읽기 전 활동"과 뒷부분에 "읽은 후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논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집 같은 경향이 있어 아쉽다.
	펭귄클래식 코리아 유수아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의 책은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한 어린이용 도서의 원본이다. 원전에 비교적 충실하게 발행되기로 유명한 펭귄클래식 고전 시리즈로 본래 어른용 도서이고 삽화가 없지만 번역이 매끄럽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 독서력이 되는 어린이들도 충분히 읽을 만하다. 특히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어 작은 아씨들의 후속편까지 함께 읽을 수 있다.

북토크톡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12월에 발간됩니다.